



현대문명의 상징

신·화·야

놀자...

손종홍

《손종홍 교수의 다시 읽는 한국신화》낸 국문학자 손종홍

2003년 7월, EBS특강 '손종홍의 우리 신화 이야기'를 강의했던 손종홍(51·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화를 현대문명의 상징

으로 재해석한 《손종홍 교수의 다시 읽는 한국신화》(이하 《다시 읽는 한국신화》)를 냈다. 특강 당시 그가 시도한 기획은 새롭다 못해 낯설기까지 했지만, 방영 6회 만에 연강과 재방송 요청까지 받을 정도로 강의는 성공적이었다. 그의 재치 있는 말솜씨도 한몫한 게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신화 속에서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게 시청자들의 흥미를 자극했다.

“보통 신화를 소개할 때 이야기 속 사건에만 집중해 흥미를 강조하거나 지나치게 교훈적인 요소를 찾아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현대인들이 진정한 신화의 매력을 느낄 수 없습니다. 대신 전 신화를 우리 시대가 만들어낸 재미있는 문화와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신화에 인류문명의 모든 것이 녹아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접하는 문명의 이기체들은 이미 신화의 상징으로 담겨 있다는 것이다. 《다시 읽는 한국신화》에는 각 장마다 짧게 신화를 소개한 뒤 현대와의 연결점을 발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알라딘의 마술램프’나 ‘나는 양탄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거인이 연기가 되어 램프 속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의 컴퓨터 저장 기술로, 양탄자가 나는 것은 비행기로 실현됐다고 할 수 있지요. 이처럼 신화에는 과거·현재·미래가 담겨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화를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화 속에는 문명 발전으로 우리가 등한시하는 것들의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독자들이 쉽게 접근하면서도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위해 그는 제목에서부터 신경을 썼다. <기생족과 견훤신화> <꿈꾸는 자와 서동신화> <인제 양성 과 연오랑세오녀신화> 등 각 장의 제목은 삶과 신화를 연결시켜 호감을 끌어들이면서도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잘 드러냈다.

인기리에 중영되기는 했지만 EBS 특강이 시작부터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다시 읽는 한국신화》가 받아들여지기까지 그는 우선, 낯설어할 독자들을 걱정해야 했다. 《다시 읽는 한국신화》에서 신화와 관련된 일반이론과 교훈을 도출해내는 구성을 취한 것도 독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화에 대한 생각을 배려한 결과라고 말한다.

“제가 보는 신의 범주는 두 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정치적인 힘을 가지는 조국신과 땅에서 올라와 백성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신이 그것인데, 전자는 민족의 신, 후자는 민중의 신에 속하지요.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한 신화의 체계가 일반인들의 신화이해를 낯설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노파심을 갖게 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토록 신화에 집중하는 그가 내리는 신화의 정의는 뭔가 특별하다. 신화는 문명의 시작이고 문명의 끝이다. 다시 말해 문명 자체가 신화를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그가 설화 주인공으로 알려진 서동과 처용, 온달을 신화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유는 그 범주 확장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당시 백성들에게 그들은 신격화됐기 때문이다. 용의 아들로 태어난 서동은 죽어서 백제의 호국신이 됐고 역신이 아내를 범하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 물리친 처용은 문신門神이 됐다. 그리고 바보로 알려진 온달은 신분제 사회에서 백성들의 신분 상승 열망이 투영된 민중의 신이 됐다. 이처럼 신화는 민중을 닮고 또 민중은 신화를 닮으면서 시대는 변화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야기’로서의 신화가 아닌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신화를 보는 그의 태도는 지난 것들을 배제시키기에 급급한 현대인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다.

“신화 속 매크로와 마이크로의 개념도 이와 달리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문명이 거대 지향적이었고 그 분야의 신화가 각광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마이크로, 즉 거소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문명의 창조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누구보다 신화의 재해석으로 현대사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에 앞장서는 그는 우리 고유의 신화보다 서양신화인 그리스·로마신화가 주목받는 현실이 안타깝다. 서양신화가 교육적인 요소를 내세운 만화로 만들어져 아이들의 주시청시간대에 자리잡은 것처럼 우리 신화도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는 분야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손 교수는 말한다. 또한, 21세기에는 문화상품이 한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며 기존의 신화뿐 아니라 발굴되고 재해석된 신화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인식하기를 바란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현재 방송통신대학에서 국문학을 가르치는 그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졸지 않도록 하는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강의를 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보다 내 것을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일종의 ‘쇼맨십’이라고 할 수 있죠. 똑같은 강의는 학생들을 지치고 지루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부러 강의노트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즉흥적으로 이끄는 강의에서 학생들은 더 많은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또 12년 전부터 문학기행을 해오고 있다. 문학도 텍스트위주의 강의보다는 시청각강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현장체험의 중요성을 느끼고 문학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게 그의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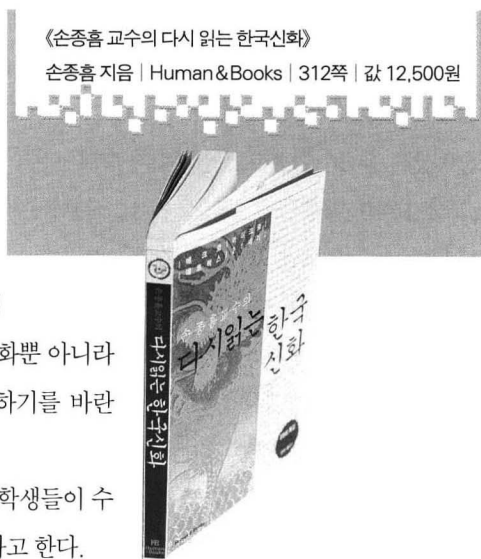
“10년 동안 고전문학 영상강의를 준비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는 등 예전처럼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손종흠의 고전문학기행》이 문화관광부 추천도서가 되기도 했구요. 그리고 13개 지역 방송통신대학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전국을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역시 감사한 일입니다.”

일 년에 적어도 영화 50편을 본다는 그는 홈페이지(www.knou.ac.kr/~jhson/)에 ‘영화비평’란이 따로 있을 정도로 ‘문학인으로서 영화를 읽는’ 마니아다. 여가 시간은 영화와 등산으로 보내지만 그 외의 모든 시간은 공부에 열중한다. 그렇다보니 결혼도 남들보다 늦어졌다는 그는 몇 년 전, 즐겨하던 술과 담배마저 공부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끊었다. 그는 여전히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진 문학교사생이다.

그에게는 오래전부터 구상해 오던 꿈이 있다. 한국의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연

결된 문화광역권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막대한 자금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런 그의 바람에서 문학을, 문화를 생활 속에서 숨쉬게 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취재 홍이현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손종흠 교수의 다시 읽는 한국신화》
손종흠 지음 | Human&Books | 312쪽 | 값 12,500원